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경희대학교 대학주보사
발행편집인 조영식
주간 이석우
편집장 오홍섭
인쇄인 김준배

서울캠퍼스(우 : 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1
☎(962)0095, (963)5849
FAX(962) 7718
수원캠퍼스(우 : 449-701)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1
☎(745)5702(교환:2056·2860)
직통 (0331)280-2056·2860
FAX (0331)281-6378

제1026호 〈주간〉 1993년 6월 7일 (월요일) THE UNIVERSITY WEEKLY (1955. 10. 27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1964. 1. 동록번호 나-12) (1955년 5월 12일 창간) 【1】

학생회 위상정립과 조직체계 규정

서울 총학회칙 개정시안, 전학대회서 통과

독자성 인정된 각 조직, 자치내규 제정 절실

지난 84년 제정되어 사문화되었던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의 회칙이 새롭게 개정되었다.

이같은 결정은 시청각실에서 열렸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서 회칙개정소위원회가 상정한 개정시안이 출석대의원 2/3의 찬성을 얻어 통과되고 총학생회장이 개정을 공표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개정된 회칙은 전문과 총칙 이하 15장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생총회와 전학대회를 비롯한 단대 과학생회, 상설 임시특별기구, 학생회의 재정과 감사, 회칙개정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번 전학대회를 통해 회칙이 개정됨으로써 학생회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와 함께 각 조직들의 위상과 권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졌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전학대회는 총 대의원 2백28명중 1백6명이 참가한 가운데 먼저 대의원들은 전학대회 의사진행에 관한 규칙을 통과시켰고 이어 전문이하 15장에 걸친 개정시안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전문의 경우, 경희인의 책임과 회칙의 제정연도를 밝히고 있는데 '1984년 10월에 제정되고 11월에 개정된'이 그 당시상황에 관한 명확한 문서가 없다는 이유로 '1984년10월에 제정된'으로 수정되어 통과되었으며 그외 15장의 내용은 부분적인 토론을 거쳐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날 대회중 원안통과에 대한 찬반토론이 활발히 전개된 부분은 제 8장 상설특별기구중 제 5절의 고황편집위원회의 업무및 권한을 규정한 부분이었다.

'고황편집위원회는 편집에 관한 자율권과 예산집행에 관한 독립권을 갖는다.(제68조 2·3항)'에 대해 김운회(국문·4) 문리대학생회장은 그 동안 받간되어왔던 교지는 학생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부분의 삭제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민표(철학·3) 고황편집장은 "편집자율권없는 언론은 존재 할수 없는 일"라고 반박했고 통과되지 못했던 원안에 대한 재투표결과 제68조의 2·3항이 그대로 통과되었다.

또한 특별기구로서 조국통일위원회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을 갖는 문제에 대해 찬반토론을 거쳐 투표한 결과 '조통위 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 학대운영위원, 전학대회의 대의원이 된다(제 4절 62조 2항)'는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었다.

이번 회칙개정은 총학생회의 올바른 위상정립과 관례적으로 이루어졌던 학생회 운영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시도되어 통과되었으나 이후 논의되어져야 할 문제가 존재한다.

총학회칙에는 '자주려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타사항은 각 단과대학의 회칙에 따른다(제10장 단과대학 제 71조 자치내규)'와 같이 이들의 활동에 대해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설특별기구(총여학생회, 동아리 연합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조국통일위원회, 고황편집위원회)와 단대·과학생회 회칙이나 자치내규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한다 할지라도 명확히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규(신방·4, 청경대 학생회장) 회칙개정 소위원회 위원장은 "회칙개정시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회칙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할 수 없고 앞으로 총학회칙에서 규정한 조직들의 회칙을 마련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84년 개정된 후 회칙이 거의 사문화되다시피했던 이유에 대한 점검과 회칙을 준수하고 체계적인 학생회사업을 꾸려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예상된다.

〈정미경 記者〉

수원 장학금 지급현황 발표

교내 10억,대외1억7천5백만원

수원캠퍼스 학생처는 지난 5월26일까지의 93년도 1학기 대외장학 지급현황을 발표하였다.

모두 2백7명에게 41종류의 장학금 1억7천5백24만여원이 지급되었으며 주요 장학금 명칭과 액수, 수혜인원은 다음과 같다.

▲이등통신-1천6백만원(16명) ▲한국통신-4백58만원(3명) ▲정수-4백96만원(4명) ▲지도자 육성-6백45만원(5명)

또한 93년도 상반기에 지급된 교내장학은 모두 10억 1백36만원으로 모두 1천6백80명이 수혜하였다.

항목별로는 체육실기 장학이 모두 1백81명에게 2억5천5백81만원이 지급되어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했다.

한편 학생처는 93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수혜희망자를 접수하고 있다. 희망자는 오는 18일까지 장학금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각 단대및 과 사무실로 제출하면 된다.

2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고지서에 수혜금액만큼 감면되어 고지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시엔 93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총학, 여름 농촌활동 실시

참가자 모집, 답사활동 등 준비

본교 양캠퍼스 총학생회는 오는 방학기간에 여름 농촌활동을 실시한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지난 5월에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봉농활을 한 이후 2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농활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11일동안 이루어질 예정이다.

총학은 오는 24일까지 농활 참가자들을 각 단대별로 모집할 계획이고 오는 13일 농활답사가 끝난 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총학은 농활과 아울러 오는 7월9일에 '미 대통령 클린턴 방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때에는 미국의 쌀개방압력과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태도를 규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수원캠퍼스의 여름농활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 경기도 이천군 일대에서 실시된다.

지난 봄농활을 실시했던 이천군 일대 설성면 등 6개 마을을 중심으로 약 15개 마을에서 실시될 이번 농활에서 대원들은 반미·지주·통일의 의지를 새롭게 다질 예정이다.

이번 농활을 위해 총학산학 '농활가세추진위원회'(농추위)는 오는 18·19일 양일간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숙소를 마련하는 한편 각 마을의 농활주체와의 간담을 통해 활동내용을 정하기 위한 답사를 실시한다. 농추위는 이어 24,25일에는 농활학교를 개설하여 분반별, 마을별 모임을 통한 교양과 준비상황의 최종점검도 할 예정이다.

6월정신 계승과 개혁과제 제시

6월항쟁 기념 및 추모제 개최

명예회복, 진상규명, 반민주악법 철폐촉구

87년도 6월항쟁의 6주년을 기념하는 '6월항쟁 기념및 민주열사 합동 추모제'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본교 서울캠퍼스와 명동성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6월항쟁의 6주년을 기념하며 그날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현재의 개혁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을 비롯한 여러 민주단체가 참여하여 개최되는 것이다.

이번 추모제는 ▲민주열사와 희생자들의 명예를 국가적 차원에서 회복해줄 것 ▲의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반민주악법의 철폐 등을 촉구하기위해 지난 90년부터 열렸고 올해에는 본교총학생회가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민주열사범국민추모사업회(건)와 공동주최하여 갖게된 것이다.

추모제는 12일과 13일 오후4시에 본교 서울캠퍼스 노천극장에서 있을 예정이고 '일어나라 열사여'라는 추모공연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6월항쟁기념 서울 시민한마당'은 오는 10일 명동성당앞 도로일대에서 개최된다.

행사내용을 살펴보면 '열사의 거리', '통일의 거리'와 '노동자마당', '교사마당', '학생마당'등이 명동성당앞에 6월항쟁을 계승하는 내용의 전시회나 문예공연으로 꾸며질 예정이고 오후 6시부터는 '6월항쟁 정신계승 범국민대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미시건대와 자매결연 체결

만장일치 통과, 오늘 조인식

본교는 미시건 주립대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것으로 지난 4일 알려졌다. 국제교류위원회는 Assistant 부총장, Barbara Steidle교수 등 미시건대 관계자가 7일 내방, 중앙회의실에서 본교 조영식 총장, 조정원 국교위 위원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자매결연을 체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Assistant부총장 일행은 7일 자매결연 조인식에 서명한 뒤, 8일에는 수원캠퍼스 배태영 부총장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매결연은 지난해 신건철교수의 주선으로 교류협력에 관한 물꼬를 튼 뒤 미시건대 연례 Committee(각 단과대학대표자와 대학본부 관계자회의)에서 본교와의 자매결연에 대한 투표결과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미시건대는 1855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18개 대학, 1백6개 학과에 교수 2천7백여명, 학생 4만4천여명이 소속된 방대한 학교로 알려졌다.

한의대생 집단유급사태 위기촉발

한의대학생회 "약사법 철회없는 수업재개 거부"

전국한의대생 3천여명이 집단유급사태에 직면하면서 심각히 전개되고 있는 약사법 시행규칙철회움직임에 대해 보건사회부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약국에는 재래식 한약장 이외의 약장을 두어 깨끗이 관리하여야 한다(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 1항 7호)'를 삭제하는 법안이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시작된 이번 사태는 지난 3월23일 본교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수업거부를 결의하여 7일 76일째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5월24일 정부와 민자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한의대생들의 요구를 협의했고 지난 1일에는 보사부가 '한약관련문제에 대한 방침 통보'라는 공문을 전한련에 보내왔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6월1일부터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법개정 추진위를 6월중 구성한다 ▲추진위가 구성되면 공청회 등의 여론조사를 통해 공청한 법개정을 추진한다 ▲한의학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등이다.

이에 대해 전한련은 "한약조제 금지가 전제되지 않고서 논의되는 한의학 발전방안은 오히려 약사들의 한약조제를 현실화하고 기득권화할 뿐이다"고 입장을 밝혔고 본교 차용석(한의본·4)군은 "국민건강권의 확보라는 본질적 요구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없고 단지 한의대생들의 유급사태를 막기위한 임시방편적인 조치"라며 보사부의 이번 방침을 비판했다.

한편 지난 4일 48명의 본교 한의과교수들은 조영식총장의 주재로 긴급교수회의를 갖고 오늘부터 수업을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참석한 교수들은 집단유급상태를 막기 위해 학생들에게 수업에 참가하도록 촉구할 것임을 밝혔으나 한의대학생회는 이에 대해 "우리의 요구가 완전히 관철될 때까지 수업재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보사부의 약사법시행규칙철회입장이 표명되기 전까지 유급사태는 막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서교수 파면 교육부 취소

징계 절차상의 잘못 들어

본교 서병희교수의 파면처분 심사에 대해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교심위)가 지난 29일 취소결정을 내렸다.

교육부 교심위는 지난 2월18일 서병희 교수가 고황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징계사유의 통지와 진술기회의 일부 부여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대해 오상훈 고황재단 사무국 차장은 "교육부가 문제로 지적한 호텔전문대학 학장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황재단 아래에는 하나의 징계위원회가 있으므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진술기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진술기회가 일부 주어졌으나 본인이 거절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취소결정에 대해 의대학생회는 우선 경희의료원과 학교측의 태도을 지켜본 다음 서병희교수의 원지복귀와 정확한 사건규명에 대해 오늘 열리는 교학간담회가 끝난후 비상총회를 거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의 이번 조처로 서병희 교수의 파면이 취소 되었으나 보건사회부가 기소한 재판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직위 해제 상태로 남아 있다.

교무처, 학사일정발표

교무처는 지난 4일 방학중 학사일정을 발표했다. 교무처에 따르면 2학기 개강은 8월 23일이며, 2학기 등록기간은 이보다 조금 앞선 16일부터 19일까지이다.

한편 후기학위수여식은 8월 31일로 알려졌으며,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사과연 '자문위원회' 창립

본교 사회과학연구소(소장 신경현 교수)는 지난 5월19일 학문활동의 진작과 이에 대한 사회와의 공유를 위한 '자문위원회'의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정경대 등문을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초대회장으로 최종원(정외 6회 졸) 등문을 선출했고, 앞으로 각종 연구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연구사업참여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포철, 회사초청 설명회

이번 설명회에서는 회사소개 및 공장견학, 그리고 등문선배 사원들과의 만찬 등이 있을 예정이다.

경비는 회사측에서 부담하며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오는 17일까지 각 과 사무실로 신청을 하면 되고 신청자 중 78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호가 1학기 종간호입니다

"1994년 5월 18일"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십시요—

45주년은 우리모두가 준비합니다

1994년 5월 18일 —
이날은 불모의 땅에서
오늘의 경희를 이룩한 지 4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개교 45주년—
언제나 밝고 깨끗한 학풍을 지켜온
경희는 이제 반세기의 전통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교 45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94년의 개교45주년을 준비하며 더불어
99년의 50주년을 맞는 경희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희 온 가족의 힘과 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45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참여와 뜻 있는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개교 45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전화 : 961-0025, 0026